

## 다산포럼

이승우



무고하게 죽기는 사람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의 행동은 규범('거짓말을 하지 말라')을 어겼지만, 그러나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상황윤리론자들은 주장한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누군가 해를 입는 것이 명백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이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은 이타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이 상황윤리의 강령이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때 거짓말은 약자의 최후수단(ultima-ratio)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말은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나 이타적인 거짓말의 경우, 그 거짓말은 지금 가해자이거나 잠재적으로 가해자일 수 있는 사람을 향해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단로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있지만, 죄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향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를 만든다.

미국 국방성과 FBI 등의 자문을 맡은

졌다. 한 여교수의 대답하고 뻔뻔스런 학력 사기 사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입학한 적도 없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연히 폴 애크만의 책이 눈에 띠어 들어 읽었는데, 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따른 죄책감을 줄일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스스로의 환상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귀한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거나 거짓말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

문에 큰 혼란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무솔리니 자신이 자기 속임수에 속아 이탈리아 군의 역량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때문에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여교수는 자신의 가짜 학력을 즐겨 과시하고 자랑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속여 넘기고 있다는 쾌감을 누렸을지도. 그 무엇보다 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 버렸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그녀가 제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대법하고 뻔뻔하게, 혹은 경솔하게 자신의 가짜 학력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했겠는가.

내가 읽은 그 책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헨리 키신저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속임수를 통해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낭만주의자뿐일 것이다. 외교관에게 속임수는 영리한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될 것이다. 주로 같은 사람과 반복하여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임수가 통하는 것은 기껏해야 한번뿐이다. 그것 역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외교관에게 그럴진대, 누구에겐 그렇지 않겠는가. 교수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거짓말

바 있는 폴 애크만이라는 심리학자의 '거짓말 잡아내기'라는 재미있는 책에 의하면, 거짓말에 동반된 감정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말고도 쾌감이란 것이 있다. 성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난 후에 느끼는 안도의 기쁨, 성취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희생자를 경멸하면서 우쭐해 하는 쾌감 같은 것을 말한다. 죄의식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도 좋은 쾌감의 재료가 된다. 이때 거짓말도 등산이나 운동처럼 즐기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가짜들에 대해 탄식하게 하고, 거짓과 가짜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과 허술한 경증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또 더

까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식이다.

더 그럴 듯한 설명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므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한 거짓말에 본인 스스로 속게 된다는 것.

무솔리니가 그 본보기로 소개되었는데, 그는 1938년 1개 사단의 편성을 기준의 3개 연대에서 2개 연대로 바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파시스트당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0개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탈리아 군은 이 변화 때

## 시·설

## 전남 핵심사업 내년 예산 대폭삭감이라니

전남도가 중앙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국고예산 가운데 지역 핵심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률이 크게 떨어져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16개 중앙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지역 혁신사업 국고예산 5조8천412억원 가운데 4천480억이 간이 4조3천732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이 같은 부처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천4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서남해안 관광재래도시 조성(J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전남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문화관광부는 전남도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 자동차 경주대회인 F1(포뮬러 원)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41억원을 '국제대회 미승인'을 이유로 전액 삭감해왔다. 또 J프로젝트 간척지 매입부 390억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양도·양수를 협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들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같은 문광부의 삭감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국제 대회나 경기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장

기초적인 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F1대회가 국제 대회로 승인받을 수 있겠는가. J프로젝트 간척지의 경우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 개발 시행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J프로젝트 사업은 전남지역이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혁신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전남지역 핵심사업 관련 예산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시·도, 국제행사 유치 총력 차질 없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각종 회의와 학회, 전시회 등 국제행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광주·전남을 알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전략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지역 방문의 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부터 지역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 강원을 시작으로 2005년 경기, 2006년 제주, 2007년 경북에 이어 내년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 선정된 것이다. 선정지역에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함께 관광진흥기금 2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철학의 기회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가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제행사 유치팀을 발족시키고 했다. 'ASEM(아시아·유럽회의) 재무장관회의와 제9차 세계문화관공학회 등이 주요 유치 대상이다. 30개 이상의 국가 대표나 회원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광주·전남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광주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광주비엔날레 등도 각인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부전략이다. 시·도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행사를 끌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도는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내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관광산업을 비롯 지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세계적 권위의 경제전문 잡지인 미국의 포천지는 1955년부터 세계 500대 기업의 순위를 매겨 오고 있다. 몇몇 전부터는 아시아 50대 기업 랭킹도 발표한다.

포천지의 선정 기준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건전성, 기술 혁신성, 종업원에 대한 배려 등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에 고객과의 관계형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영속성 등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500대 기업 모두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첫 500대 기업에 선정됐던 기업 중 55%가 사라졌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들이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 바람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다.

포천 최근호는 올 최고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 3천511억~3천900만달러, 순익 112억~1400만달러를 기록한 월마트

를 뽑았다. 지난해 1위에 올랐던 앤슨 모빌이 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기업 중 수위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6위)였다. 올해의 경우 고유가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석유관련 기업이라는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매출 894억~7천600만달러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46위에 오르는 등 14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수지상으로 지난해 12개보다 2개 늘었다.

포천 선정 아시아 50대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에 비해 형편없이 뒤쳐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6개인 반면 일본은

절반이 넘는 31개나 된다. 중국도 우리보다 2개 많은 8개다. 특히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1위에 오른데 이어 2~4위를 중국 기업이 차지, 중국의 경제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올 우리 경제계의 최고 화두인 '샌드위치론'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찰각! 동물 세상

## 평상 효과



한낮이면 호랑이나 사자들은 '평상'

양접근조차 않는 것이다. 동물의 왕인 것들이 무슨 경계심이 그렇게 많은지.

당연히 평상은 쓸모없게 방치되다시피 했고 만들자고 제안했던 직원이나 제작자들을 조조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두머리 수컷을 선두로 한두마리씩 평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 급기야 단체로 좁은 평상에 올라섰다. 그때부터다. 좋은 것을 알았는지 이 평상의 가운데 부분은 우두머리가 차지한다. 마치 '왕좌'처럼 말이다.

슬기롭고 지저분한 땅바닥에 머물고 있는 동물을 볼 때마다 여간 미안했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다.

◇ 최종 육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자녀들, 자연 벗삼아 호연지기 기르는 방학 됐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대학생을 막론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통 학교교수수업이나 학원에 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초등학생들은 영어나 미술, 음악, 피아노, 태권도 학원에 다니며 중학생들은 속셈학원에서 영어와 수학을,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학원에서는 영어와 수학 및 수학 2를 주로 배우며 대학생들은 외국어회화와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다.

방학이 되면 다양한 책을 읽고 고궁이나 박물관을 둘러보고 음악회나 미술전시회 등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 여름철 물놀이 안전, 선택 아닌 필수

통제를 하지 못한 게 1차 원인이다.

소방재청과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해수욕장과 강 등을 관리하고 있다.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거세면 해수욕장을 통제한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고흥 남영 해수욕장 사고도 과도가 거세 입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경찰이 통제에 따른 안내에 나섰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모든 피서객들을 대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경찰들이 제대로

'열사장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이를 지금 하지 않는 게 유일한 규정이다.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면길을 달려와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어린 시절 평상은 의사로도, 침대로도, 때로는 작은 사방방 역할도 했다. 1~2시간 맘껏 쉬어 가는 여유 외에도 개미 등 평위의 벌레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위 아래로 자연풍을 느낄 수 있다. '내 것'이라는 은근한 지배 효과도 만끽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물놀이 안전 요령은 ▲ 어린이들은 보호자에게 지켜볼 것 ▲ 음식물·술·술을 먹은 뒤 바로 물놀이는 하지 말 것 ▲ 물 흐름이 빠른 곳 피할 것 ▲ 흔자수 물놀이는 하지 말 것 ▲ 충분한 준비운동할 것 ▲ 키를 넘는 깊은 곳은 피할 것 등이다.

안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피서객들이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굿네이버스 여름 캠프 담당〉

## 외국산 애완곤충 불법판매 근절 대책 세워야

애완 곤충 판매업자가 외국산 곤충을 밀수입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애완 곤충 판매업자들은 사슴 벌레·장수 풍데이·거미·달팽이 등이 인터넷 상에서 1만원~수십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는가 하면, 곤충과 관련한 동호회도 운영되고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식물방역법상 살아있는 외국산 곤충을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전 외국에서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왕우렁이를 마구잡이로 수입, 판매해 외래종들이 토종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직접 겪지 않았는가.

외국산 곤충 밀반입의 거래자와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